

# “국민연금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은 필수”

### 김성주 의원, “정부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위한 역할 미흡”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국토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를 조성하는 데 더뎠다.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서병/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돼 온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중심도시 및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균형발전을 위



해 조성된 전북 혁신도시로 지난 2015년 이전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 이전에 대한 일방적 취소,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공단 본부만 이전하는 반쪽짜리 이전 비판 등의 우려폭발도 있었다.

19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은 기금

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최초로 추진해, 박근혜 정부의 반대 속에 여야정 합의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며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1000조 원 시대를 앞둔 연금의 세계적 위상강화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부산·전주에 있는 금융 트리아앵글을 통한 금융산업의 국

제경쟁력 강화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대형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의 전주사무소 개소 그리고 SK증권, 우리은행, 무궁화신차, 현대자산운용, 하나펀드서비스 등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가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900조원의 기금이 적립된 국민연금은 내년 1,000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전북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며,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및 금융중심도시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과 제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행계획 등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성 기자



### 새로운 개인뱅킹 앱 전은, 'JB뱅크'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13일 새로운 개인뱅킹 앱(App) 'JB뱅크'를 출시한다. 디지털 금융 가속화와 비대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시한 'JB뱅크'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서비스와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큰글씨 서비스 전면 확대 등 고객들의 편의성을 대폭 확대했다.

먼저, JB뱅크에는 전북은행만의 차별화된 인증 서비스인 'JB모바일 인증서'를 도입했다. 해당 인증서는 간편 비밀번호 6자리와 패턴 또는 바이오인증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과 거래 인증수단을 다르게 설정해 보안성도 강화한 것이 특징. 또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 동선을 고려해 인증서 발급 절차를 전자금융 가입 절차와 연계시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새롭게 개편된 메인 화면에서 고객의 대표 계좌나 카드의 잔액 및 결제 대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취향에 맞게 메인 화면에 보이는 계좌 및 카드의 순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며,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기조에 맞춰 전북은행 계좌가 아닌 타 은행 계좌도 대표 계좌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중·장년층 고객권을 위한 큰글씨 서비스 적용 메뉴를 전면 확대하고, 앞서 언급했던 메인화면 테마 설정에도 '큰글씨' 테마 제공으로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반복적으로 다수에게 이체를 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건이체' 신규 도입, 채널별 상품기밀차별 통합화 등 기존 이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했다.

/김윤성 기자

## 홍보부터 물류까지 '윈스탑'

### 전북경진원, '틱톡 차이나' 지원사업 일환 케비넷 등 도내 6개사 제품 중국에 홍보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중국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틱톡 차이나(TikTok China)'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3일 (주)케비넷 등 도내 6개사 제품을 '웨이보' 채널을 통해 성황리에 홍보했다.

이날 주한중국인 크리에이터 '유신월(팔로워 약 120만명)과 함께 홍보한 본 제품들은 '너무인' 물에 한 달간 입점해 판매될 예정이다. 현지 운영사와 협약을 통해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제조사에서 중국 각지 소비자들에게로 물류까지 윈스탑으로 진행돼 초보기업의 시름을 덜었다.

중국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20년 기준 1.1조 위안으로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0.4)조 대비 약 50배 큰 규모다. 2022년에는 약 2.8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현지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20.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현용 경진원 원장은 “잠시 주춤했던 한류가 최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80~00년대대를 중심으로 다시 강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유통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진원은 도내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해 전화 한 통(1644-7155)으로 지원사업 안내부터 시장진출·수출전문분야(법률/지식재산권/통관/관세/세무/회계)까지 컨설팅 받을 수 있고, 클릭 한번(https://trade.jonbuk.go.kr)으로 수출지원사업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발생 폐열 회수 재활용

### 온수·온풍 전환 시스템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수거된 분뇨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거쳐 고체와 액체로 분리, 발효된 다음 고체비료와 액체비료(액비)로 만들어진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운데 액비를 처리하는 발효조에서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저열함에도 약 38도의 반응열이 발생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액비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작기 규모의 폐열 회수 시스템(8RT, 17.5kW)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해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회수 열량을 분석한 결과, 액비를 분당 76L 순환했을 때 폐열 회수 시스템은 시간당 77.4MJ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1일 기준 619MJ의 에너지를 회수해 활용할 수 있다.

회수된 열은 온수 급탕탕 산정 방법으로 비교했을 때, 15인 공장에서 약 1일 온수 급탕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다.

연구진은 폐열 회수를 통해 저장된 열에너지를 온풍 또는 온수로 이용할 수 있게 팬 코일, 폐비 건조기 등으로 구성된 건조 시스템도 개발했다. 건조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20kg의 폐비를 27시간 동안 건조시킴으로써 초기 수분함량을 약 44.5%에서 30.4%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규모화 단위로 적용하면, 버려지는 폐열을 고체비료 건조와 주변의 축사 난방 또는 시설하우스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현장 연시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량·보완한 후 에너지 절감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성 기자

구 과정은 “폐열을 회수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공급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익산 가축분뇨 처리시설 최석우 센터장은 “가축분뇨 폐열 활용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처리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앞으로 경축 순환 사업과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 농업인 일상생활 법률문제 해결 '이곳에서'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식)와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13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지난 2011년 시작으로 올해 11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다. 농·축협에 종합감사 기간 중 준법지원부 변호사와 함께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업인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윤성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남부안농협은 13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축협 사업추진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농업인·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 전기안전공사,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공사부문 대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1회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공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소셜네트워크진흥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국내 기업,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SNS 활용현황을 중

합적으로 평가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업을 상을 수여하는 행사다.

공사는 지난해 공사 부문 최우수상 및 올해의 블로그에 선정되며 이어 올해는 공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콘텐츠의 우수성과 함께 SNS를 통한 국민 소통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윤성 기자

를 슬로건으로 생활 속 전기안전 정보 및 공사의 정책을 알기 쉽게 제공해 일평균 방문자 1만명을 기록, 공사의 온라인 허브 채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을 재정비해 어린이를 위한 미리창작동화, 전기안전 대리살림 및 공사 임직원의 브이로그 등 다양한 소재의 영상을 제작해 디지털 홍보를 강화했다. /김윤성 기자

### 축! 전주매일 창간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안내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 농지 매입

- > 매입대상자
  -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1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 >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 매입농지 임대

- > 임대대상자
  - 신규임대 : 전업농육성대상자
  - 재 임대 : 기존 임차인 희망 시 계속해서 재 임대 가능
- > 임대 기간 : 5년(5년 단위로 재 임대 가능)
- > 임대 가격 : 공사에서 정한 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 협의가격
- > 임대 조건 : 5년간 버 이외의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
  - 타 작물 재배 시 임대료의 80% 감면 혜택
  - 휴경 시 임대료 80% 감면 혜택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 063) 530-0313